

여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돌입

치유 화합·사회적 관심 제고 지원 추진

21일부터 27개 읍·면·동서 피해 접수

여수시가 읍·면·동에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치유와 화합,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1년간 '여순사건 피해접수'를 받는다 고 18일 밝혔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

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 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 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 사실을 밝혀내자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

고접수 시작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읍·면·동 책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회 박종길 부소장의 '다시 보는 여순사건' 강의와 행정안전부 위원회 준비단 담당자의 '피해신고 업무 세부지침'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생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짧은 기간 안에 정확한 피해 사실 입증에 위해서는 생존 희생

자 및 유족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여순사건 피해신고 업무 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치유와 화합,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여순사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여순사건 문화예술제와 4·3유족과의 교류 행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족 증인 기록사업,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등이 진행된다.

또한 기념공원 유지 및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와 여순사건 심포지엄 개최,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과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사업, 유적지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권역별 차별화 특화 전략 지역민 경쟁력 강화 중점”

2022 새해설계

유근기 곡성군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1% 특별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찾아 모두가 행복한 ‘곡성의 새로운 아침’을 열겠다고 새해 설계를 밝혔다.

우선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전략을 펼쳐 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한다.

곡성읍권은 행정과 문화,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스테이션 1928’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비밀인덕25’는 올해 완공할 예정이다. 문화누리도서관도 조성하고 리본프로젝트, 6070 낭만거리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볼거리를 더한다.

육곡권역은 미래 전략 산업의 요충지로 육성한다. KTC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전력, 에너지 등 연관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운곡특화농단지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와 청년일자리 카페 ‘필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석곡권은 러스틱 라이프와 오도이촌의 거점으로 키워나간다. 대항강수변에는 출렁다리 주변에 모험시설, 야간경관, 특화형 쉼터 등을 조성하고 인성원 주변에 숲 놀이터와 이색 숙박 시설을 만든다. 돌실어울림센터를 착

공하고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생활 SOC 사업, 전선지중화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차 산업화와 고급 기술화 투트랙 전략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완공해 곡성도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다양화하고 멜론복합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곡성명품멜론의 6차 산업화를 이룬다. 곡성제리와 블루베리는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을 지원해 또 하나의 대표품목으로 육성한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섬진강동화정원에 미디어존, 호빛정원 등을 더해 관광의 양대 축으로 키운다.

유 군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가능성의 차원에 머물던 모든 잠재력을 빼집없이 발아시켜 모두가 꿈꾸는 곡성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광양, ‘행복을 짓다’ 준공식 동광양로타리클럽 매칭그랜트

광양시가 건축센터가 최근 동광양로타리클럽과 함께 다압면 고사리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행복을 짓다’ 주택신축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주택신축은 지난해 9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택신축매칭그랜트사업에 선정되면서 진행했다.

이번 주택 신축은 10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00만 원, 동광양로타리클럽 2,500만 원, 광양시로타리클럽 우광일 전 총재 2,000만 원, SNNC에서 700만 원을 지정 기탁해 총 7,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시가 최근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행복을 짓다’ 주택신축 준공식을 열었다. /광양시 제공

오미크론변이 전국 확산 올해 광양매화축제 취소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양매화축제가 취소됐다.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가 ‘제22회 광양매화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는 전날 소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상춘객을 위한 철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세계차EXPO 온택트 전환

코로나로 국제행사 추진 한계

보성군이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 EXPO’를 비대면 온택트 행사로 전환해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애초 보성군은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제행사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외국의 참여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 규모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대면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다.

특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행사 기간도 단축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편성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온택트로 개최되는 2022년 보성세계차 엑스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사항을 준수하며 개막식, 판매행사, 품평·경연,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차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내년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전 세계 차인이 즐기는 차 문화 축제를 만들고 보성 차의 도약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산업 로드맵을 제시하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김경규 곡성경찰서장 취임

“현장서 답 찾도록 최선”

곡성경찰서 제77대 서장으로 김경규 총경이 취임해 지난 17일 화상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김 서장은 태안사 경찰출훈탑을 참배하고 비대면 화상 취임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치안업무에 시작했다.

김경규 서장은 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업무능률 향상과 직장 내부 만족도 향상



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규 서장은 경찰대 12기로서 1996년 경위로 임관해 경남청 양산서 수사과장과 서울청 동대문서 수사과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수사부서를 두루 거쳤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구례 여자의용소방대, 압화 꾸미기 체험

구례군 여자의용소방대가 최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백두대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압화 원목트레이 꾸미기’ 체험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원들은 손으로 압화가 흐트러지지 않게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며, 꽃과 관련된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박금숙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전시

관 관람도 하고 나만의 소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식물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가든으로 실내 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식물 생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순천 신우회, 어려운 이웃 위한 위문품 기탁

순천 신우회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70세트를 상사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신우회는 순천과 광양에서 활동하는 지역봉사단체로 작년 설 명절에도 생활용품 90세트를 기탁하는 등 꾸준한 기부로 이어오고 있다.

박창현 신우회장은 “새해를 맞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성연 상사면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함께 나누고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주)KCC 여천공장, 성금 8천만 원 전달

(주)KCC 여천공장이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18일 8,000만 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위기 가구 8세대의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경기 공장장은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의 실천은 기업의 성장과 지역민들의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C는 건축자재, 창호, 도로와 첨단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정밀 화학기업으로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